

합격을 위한 공부를 위해



박철호

- 성남 풍생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재학 중
-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일반행정직 합격

I. 들어가며

공부를 하다가 길을 잃는 느낌이 들 때,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기분이 들 때마다 먼저 합격하신 선배님들의 수기를 읽으며 다시 공부의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면서도, 저의 수기를 읽고 영향을 받으실 수험생 분들을 생각하니 부담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부의 正道란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시되, 본인에게 맞는 방법만 취사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수험생활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I. 과목별 공부방법

1. 제1차 시험

(1) 헌법

헌법은 비록 60점을 넘기지만 하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자칫 '헌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확실히 개념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에 진입하기 이전, 군 복무 중 김유향 선생님의 기본 강의를 1번 수강하였습니다. 당시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실히 숙지해둔 것이 이후 재차 피셋을

응시함에 있어서 부담을 덜 수 있던 핵심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피셋을 응시하는 분이라면, 기본 강의 수강 후 기출문제를 통한 지문 정복과 모의고사 풀이를 통한 반복 학습을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시 이상부터는 헌법을 공부하는 데에 있어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5급 공채, 특히 일반행정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헌법 공부를 하면서 2차 공부까지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정치학 전반에 걸쳐 헌법과 연계되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헌법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2차 답안지에 이를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면 더 집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이나 부속법률의 경우 2차 답안지에 직접 쓸 수 있는 조문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가 되는 공부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 언어논리

언어논리는 처음에는 가장 접근하기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만큼 이후에는 점수를 올리는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최근 갈수록 언어논리의 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목 전체를 운용함에 있어 논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었습니다. 독해 문제를 우선 다 푼다고 생각하되, 1~2 문제 정도는 넘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체쳐두었던 논리 문제와 몇 개의 독해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논리 문제의 경우 사고의 접근이 잘못된 경우 자칫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

문에 다른 문제를 미리 풀고 난 경우 훨씬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논리와 강화/약화 문제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출문제 중 해당 영역 문제만 따로 편집하여 저만의 문제집을 만들어서 푼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 속에서 해당 문제들의 방향성을 분석하면서 각 선지가 왜 오답이고 정답인지를 분석하는 과정이 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논리 문제를 풀에 있어 자신만의 기호화 방법을 통해 간략히 분석해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처음에 진입장벽이 제일 높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점수 향상의 폭이 컸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지만 처음 피셋을 공부할 때 석치수 선생님의 기본서를 통해 문제 유형별 접근하는 연습 및 다양한 계산 스킬을 파악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스킬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스킬만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체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계산에 있어 용이한 사고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스킬을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과 같은 계산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 역시 자료해석 점수 향상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타민을 풀더라도 시간 내에 푸는 것을 목표로만 해야지 그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결국 비타민 한 권

을 다 못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단한 계임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연습이 다양한 실전문제 풀이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만 하는 것과 이를 문제를 통해 만나는 것은 다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유형별로 틀리는 계산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오답노트로 만드는 것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공부하면서 가장 자신이 있던 과목이었습니다. 타 과목보다도 실생활과 유사한 개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문제를 풀이할 때에 있어, 1~10, 21~30, 19~20, 39~40, 11~18, 31~38번순으로 풀되 모르는 문제는 과감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상황판단 영역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수험가의 오래된 격언과 같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선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문제풀이가 쉬운 유형을 먼저 확실하게 풀면서 후반부의 어려운 문제를 틀리더라도 지장이 없게끔 하는 것이 상황판단 영역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5) 제1차시험 전반

1차 시험 준비에 있어 가장 큰 핵심은 2차 과목과의 병행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 2순환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본인의 피셋 실력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12~2월의 1,2차 공부시간 배분을 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셋 실력이 커트라인 근처에 있거나 부족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 1월까지의 80% 이상의 시간을 피셋에 투자하되, 경제학 등의 주요 과목의 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매일 일정 세트 이상의 실전모의고사를 풀고 오답노트를 하되, 자기 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여 2차 과목 서브노트 훑어보거나 간단한 답안 작성 등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피셋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2차 시험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인의 피셋 실력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1월 말 내지 2월 초까지는 경제학 및 행정법 등 2차과목에 일정 시간 이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를 통해 다른 수험생들이 경제학 및 행정법 감을 다시 잡느라 어려워하는 3월에 논문과목에도 어느 정도 시간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피셋 경험이 있는 분 중 11월이나 12월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2차 과목을 일정 비중 이상 병행하는 것이 단순합격을 넘어 고득점 합격으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2차시험 과목

(1) 행정법

행정법은 2차 과목 중 가장 먼저 시작한 과목이기도 하고 가장 자신 있고 재미있게 공부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까지는 답안 작성에 있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각 개념이 무엇이며 어디서 파생되는지, 다른 개념 및 법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다양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섞어 듣기보다는 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개념을 익히는 것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부 초반부터 행정법 교과서를 읽기보다는 강의의 기본서를 다회독하면서 행정법이라는 과목 자체와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순환 수강 시기까지는 총론을 공부해도 각론을 모르고, 각론을 공부하다 보면 총론을 잊어버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부에 임하시는 게 더 우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반드시 해당 개념을 객관식과 같이 개념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집을 통해 실제 답안에 어떻게 현출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 초반에 저는 이 점을 몰라서 이후 해냈던 기억이 있기에 이 글을 읽는 수험생 분들에게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2순환 이후부터는 다양한 사례문제를 풀되, 목차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론의 경우 각자만의 암기장을 통해 외우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체득되지만 각 문제별 목차를 파악하는 것은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유사하게 일반론을 암기하는 상황에서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것은 목차 구성이기 때문에 해당 연습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법의 경우 각 강사분들께서 카페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목차를 생각해보고 점검받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제학

경제고시라는 수험가의 흔한 조연과 같이, 경제학은 시험의 합불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급 공채 2차 합격 및 2022년 입법고시 최종합격의 주요한 원인 역시 경제학이었습니다. 특히 경제학의 경우 소위 ‘가성비’라고 하는 공부시간 대비 효율이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학의 경우 문제를 풀면서 미시경제학 과점시장 부분과 같이 단순 계산의 영역도 많기 때문에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하다가 자치는 경우 경제학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은 개념의 문제 분석 과정의 현출 및 개념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기본적인 요소이고, 경제학에서 일반적인 점수와 고득점을 가르는 것은 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2021년 5급 공채에서 2-2와 4-2의 답을 정확하게 계산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80점대를 득점한 후 저의 답안지를 열람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문의 경우 문제에서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차선의 계약’과 같은 개념을 명시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다른 문제에서도 문제에서 묻는 개념을 별도로 정리하여 현출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입법고시의 경우에도 1-1에서 적분 계산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80점대 중반의 점수를 득점할 수 있던 것은 1문 서술 시 이슈와 논점에서 언급된 깃 경제(gig economy),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앳킨슨의 ‘사회참여소득’ 개념과 연결 지어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황종휴 강사의 트리니티를 기반으로 각 개념을 정리한 서브노트를 통해 개념을 다회독하면서 이후 연습책 및 정선문제, 3순환 모의고사에 있는 유사한 개념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시간 내에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순환 기간에 경제학 모의고사를 매일 풀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한 수치 도출 및 이를 답안에 표현해내는 것까지 연습하는 것이 경제학의 완성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3) 행정학

행정학은 2021년 5급 공채에서 제가 3차 탈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자 2022년 입법고시에서 합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의 경험 상 점수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컨텐츠 보다는 답안의 구성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출제자 친화적으로, 채점하기 용이하도록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답안 구성에서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아는 내용”이 아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돋보이게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논문형 시험이란 현학적으로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시험이기에 이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키워드, 학자, 이론을 영어로 병기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많은 수험생분들께

서도 하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특히 글씨체가 좋지 않아 영어 병기를 따라 읽으면 전체적인 글의 맥락이 파악될 수 있게끔 구성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글 구성에 있어 사례를 통한 뒷받침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가 아닌, “~ 사례와 같은 방향으로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와 같이 글의 구체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행정학 공부에서 가장 방향성을 잃기 쉬운 부분이 바로 논문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한 논문을 읽는 것은 행정학 공부의 이해의 폭을 깊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학 학위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험생 수준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슈와 논점과 같이 정리된 자료를 보거나, 행정논총 등에 실린 논문의 주제 및 목차만 훑어서 가볍게 개념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정치학

정치학은 저의 전공이지만 작년까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기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합격이라는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권준영 강사님의 수업 및 특강이 정치학 점수 향상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해와 올해의 차이점은 해당 강의를 통해 단순히 정치학 개념을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학스럽게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다양한 정치학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개념 설명 자체는 대동소이하나 결정적으로 이를 답안에

어떻게 적절한 분량으로 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학이라는 과목 자체에 접근함에 있어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권준영 강사님의 강의는 정치학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정규 순환 강의 외에도 문장력 특강 및 정치사상 특강 등과 같은 다양한 특강 강의를 통해 정치학이라는 과목을 전공 수업에서 레포트를 쓰는 것이 아닌 수험용 답안으로 표현해 내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만, 1순환과 2순환의 강의 내용이 입문자가 듣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기에 초시생분들이라면 타 강사의 예비순환이나 1순환을 1차적으로 접하며 개념을 친숙하게 한 뒤 권준영 강사님의 수업으로 체계를 잡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강의 내내 강조되는 ‘조감도(鳥瞰圖)’를 통한 체계잡기와 답안으로의 표현방법 연습을 통해 정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5) 선택과목: 지방행정론

수험생활 진입 당시 한창 지방행정론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던 터라,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지방행정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행정론의 경우, 정보체계론이나 조사방법론 등 타 선택과목에 비해 암기해야 할 분량 자체가 많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라는 중대 변수도 있어서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2022년 입법고시에 출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같은 새로운 제도 역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과목에 비해 비교적 체계를 잡기 쉽고, 행정학과의 연계지점이 많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경우 수험생 개인별 성향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게 작용 가능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행정론의 경우 기본적인 체계 및 개념에는 차이가 적으나, 세부적인 이론이나 사례의 경우 강사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보다는 다양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취사선택하거나 내용을 조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한 강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브노트를 제작하되, 세부적인 내용에서 2명 이상의 타 강사의 수업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주요 법률의 경우 조문 자체를 암기하면 행정법 및 행정학에도 도움이 되므로 다소 부담이 가더라도 암기하여 답안에 현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6) 제2차시험 공부 전반

2차 공부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공부의 방향이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답안을 작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과목의 교과서와 논문을 공부하다보면 지적 호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답안에 쓸 수 없는 과다한 분량으로 그에 대해 탐구하게 되고, 그 결과 “아는 것은 많은데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으로 적지 못해 점수는 낮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불합격하던 해의 논문과목 공부 방향을 생각하면 위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답

안 작성을 위한 적정 수준에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공부의 주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Ⅲ. 생활 전반

수험 생활의 운용에 있어 다양한 자신만의 패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의 불합격한 해와 합격한 해를 비교한 경험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공부시간의 경우 평일에 아침 7시 공부 시작, 밤 12시 공부 마무리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만 주말의 경우 밤 11시까지 스터디를 진행한 후, 일요일 오전까지 주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2시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패턴으로 공부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2시간마다 20분 정도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러한 패턴을 유지한 것 같습니다.

운동의 경우 합격한 해에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의 경우 특히 3순환 기간에는 운동 없이 공부만으로 시간 운용을 하다 보니 5월 말 이후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 2022년의 경우 주2회 이상 도림천에서 한 시간 정도 인터벌로 러닝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 더욱 동기부여가 되며 운동이 가능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수준에서 적절한 운동은 강력 추천합니다.

공부 중간 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은 키토 식단이었습니다. 특히 오전에 졸면서 버리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며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1시 반 경 점심식사와 오후 5시 경 저녁식사를 먹었고 주로 닭가슴살과 간을 하지 않은 샐러드용 야채 및 미역 국수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와중에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에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되, 소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졸림을 유발할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 줄이면서 공부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단을 진행하였습니다.

Ⅳ. 마무리하며

시험을 준비하여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하나 보장되는 점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2021년 5급 공채 3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2022년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탈 후 불합격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친구들, 스터디메이트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혼자 안고 가려고 하시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 의지하면서 수험생활을 슬기롭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도 반드시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